

## 계엄 막고 노벨상 받고... 5·18 현장 찾아 광주로 광주로

45주년 맞아 전국민 뜨거운 관심  
5·18묘지 참배객 연일 북적  
“광주를 배우자” 외국인들도 급증  
각종 5월 행사 참가자 대거 몰려

올해 45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에 전국민적 관심의 물결이 몰려 있다. <관련기사 6·12·16면>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책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을 계기로 5·18과 5월 정신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5·18민주묘지는 5월 의미를 느끼려는 참배객으로 연일 북적거리고,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여는 행사마다 방문객이 발걸음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립5·18민주묘지에 따르면 5·18민주묘지 방문객 수는 2021년 19만5118명, 2022년 22만 7238명, 2023년 31만4954명, 2024년 29만9759명 등 증가하는 가운데 올 현재 5만 3056명이 몰려 들었다. 방문객 수는 1월 8329명, 2월 6405명, 3월 8094명, 4월 1만 2287명으로 매일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10일 새 1만 7941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1만 4004명)에 비해 28.1% 증가한 수치다.

5·18을 배우고 싶어 광주를 찾는 외국인도 급증했다.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외국인 수는 2022년 2140명→2023년 3559명→2024년 5047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4월까지 민주묘지에 총 958명 방문해 전년 동기(708명)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인이 12·3 계엄 등을 계기로 광주를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사위가 5월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열고 있는 행사도 인기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오월 텐트촌' 행사는 선착순 신청 접수 9일만에 3분의 2가 마감됐다. 이 행사는 1박 2일에 걸쳐 광주시 동구 공동 중앙초 운동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숙박하며 5·18 행사를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2·3인용 총 216개, 3·4인용 100개 텐트를 마련했으며, 이 중 3·4인용은 일찍이 마감됐다. 2·3인용 텐트 또한 12일 현재 100여 동 정도 신청자를 받았다.



민주당 광주 선대위 출정식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 광주 선대위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행사위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전일빌딩 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오월연극제'도 12일까지 240여명 사전 예약했다. 오월연극제에서는 극단 각지의 '광대', 극단 토박이의 '오 금남식당',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푸른연극마를 '나와 어머니와 망월' 등 연극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7일 오후 4시에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 광주역, 북동성당 등 각지에서 금남로로 집결하며 행진을 하는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하겠다는 이들도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 5000여명이 참가한 데 비해 올해는 신청 접수된 인원만 1만 6000여명에 달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1인 참가를 신청·문의하는 이들이 3~4배 이상 부쩍 늘었다는 것이 행사위 설명이다. 김순 행사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광주와 5월 정신을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광주시민들도 광주라는 도시에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안전하고 뜻깊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5월 17·18일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운행

광주시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전노선을 무료 운행한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일상에 되새기고, 기념식과 전야제 등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다. 다만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 인근 도로는 일부 통제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17~18일 양일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대선 레이스 스타트... 후보들 첫 행보 '경제 살리기'

6·3 대선 **D-21**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관련기사 2·3·4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연 데 이어 경기도 판교밸리서 첫 현장행보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의 첫 행보는 '경제 살리기'였다.

광주에서도 각 정당이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대선 승리를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당 선거 운동원들은 아침 출근길 인사에서부터 호남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과 순천 아랫장에서 지역구 의원이 총출동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내란종식·민생회복·국민통합 3대 과제를 이룩하기 위한 최적의 책임자는 이 후보"라면서 "호남에서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광주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서울 광화문서 출정식

김문수, 가락시장서 선거운동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광주 5·18 광장에 의원 총출동

국힘 순천 아랫장서 첫 선거운동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22개 각 시·군에서는 민주당 각 지역위원회 주관의 선대위 출정식과 유세가 종일 이어졌다.

광주지역 대선 득표율 30%를 목표로 잡은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도 이날 오전 광주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김정현 광주선대위원장은 "최근 혼란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지만 민주당이 광주에서 일당 독

재를 하지 못하도록 경쟁구도를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면서 "김 후보는 평택의 반도체 유치, 신도시 조성 등으로 검증된 실력으로 광주·전남 발전과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도당 관계자들이 순천시 사무실에서 발대식을 갖은 후 아랫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순천 외에도 도내 각 연락소에서 잇따라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203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한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는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점으로 정하고 홍보 피켓을 흔드는 등 지지를 호소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요즘 청년들이 5·18을 기리는 법 ▶6면

굿모닝 예행 - 무등산에 오르다 ▶19면

'광주일고 오테나' 김성준 미국 진출하나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대자보

우리의 안전 먼저! 사람중심도시 광주

## 도시광주

### 대중교통 안전수칙

- 버스 멈춘 후, 승객 하차 후 타요!
- 안전하게 손잡이 잡기! 문에 기대지 않기!
- 차량이 멈추고, 주변을 살핀 후 안전하게 내려요!

### 자전거 안전수칙

- 안전모 쓰고, 이어폰 사용 않기!
- 과속·음주 금지!
- 전용도로 이용하기!
- 야간 운행 시 라이트 켜기!

### 보행 안전수칙

- 무단횡단 않기!
-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않기!
- 횡단보도 일단 멈추기!
- 좌우를 살핀 후 우측으로 건너기!
- 어린이는 손잡고 보행하기!